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음 7월 23일) 제235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 이해찬 당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두관 참좋은 지방정부원장을 비롯한 당소속 광역시도지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탄소산업 육성 국회 협조 절실"

송하진 도지사,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에게 건의
군산조선소 정상화 · 새만금 신항만 등도 협조 요청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육성 전략 마련과 탄소진흥원 설립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탄소산업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굴, 육성해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킨 대표 모델"이라며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전략 마련과 함께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북도는 2006년부터 탄소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2008년에는 전담 지역연구기관을 설립해 이후 국내 최초로 고강도 탄소섬유(T-700급) 제품인 탠섬을 출시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독립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난 2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효성과 1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소재부품산업 자립화를 가속화하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국회 차원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송 지사는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접안시설 축조공사, 국립공공의료대대학원의 차질 없는 추진 등 지역현안 해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지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지 2년이 지나 지역경제 침체, 고용상황 악화, 인구유출 등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은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도민의 염원으로, 올해 재가동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조물량 또는 선박블록이 군산조선소에 배정돼 지역일자리 창출과 조선생태계 재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요청한 것이다.

서남대 폐교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2018년 4월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발표했지만 1년이 넘게 관련 법안이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송 지사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국정과제인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글로벌기업 유치,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 등 공공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 필요성도 언급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 2개 선석의 동시 개발을 위해 내년도 부처예산에 설계비 76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1선석 우선개발 뒤 물동량 수요에 따라 추가 개발하자며 45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이에 송 지사는 2020년 예산에 2선석 동시개발을 위한 설계비 76억원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김진성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NH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NH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담보로 취득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전용 대출상품이다.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수수료는 특허청과 농식품부, 농협은행이 부담해 대출신청인의 가치평가 비용부담이 없고, 최대 1.50%p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일시상환은 1년, 할부상환은 5년 이내로 운영한다.

또한, IP금융컨설팅(국내/해외 전략특허 확보 컨설팅)과 기업경영컨설팅(재무, 경영전략, 인사조직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김장근 본부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車 부품기업 김제에 '둥지'

도-김제시-대승정밀, 지평선 일반산단 분양 투자협약
220억원 투입 신규 공장 신축 30여명 일자리 창출

전북도와 김제시는 22일 김제시청 상황실에서 대승정밀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가 자동차부품 특화 전문단지로 거듭난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22일 김제시청 상황실(2층)에서 박준배 김제시장, 차주하 전라북도 투자금융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승정밀㈜과 김제지평성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이끌어 낸 값진 결과물로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승정밀㈜는 금번에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3만6685.9㎡(1만1097평) 부지에 220여억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3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승정밀(주)는 자동차 엔진 및 각종 주요부품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으로 이미 김제 대동농공단지와 평택에 공장을 설립하여 2018년도 기준 매출 985억원을 달성했으며, 현재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내에 ㈜대승, ㈜일강, 대승정밀㈜ 등 자동차부품 전문제조기업 3개 계열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현재도 대승정밀(주)는 지속적인 투자와 끊임없는 품질혁신, 기술개발을 통하여 세계 속의 일류기업으로 착실히 발판을 다지고 나가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차주하 도 투자금융과장은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 대승정밀의 무한한 발전과 사업 번창을 기원한다"면서 "전북도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전북에 뿌리를 내려 전북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군의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남부시장 야시장 문화콘텐츠 '풍성'

전주시, 이달부터 상설공연 등 지원사업 추진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의 문화콘텐츠가 풍성해진다.

전주시는 남부시장 야시장이 2019년 행정안전부 야시장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확보, 이달부터 상설 문화공연 운영과 야시장 이용객 편의 제공 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부시장 야시장에서는 상설 문화공연이 펼쳐치고 홍보 이벤트도 펼쳐져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야시장 상설공연은 남부시장 내 곡물거리 사거리에서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버스킹 공연과 시민 참여 이벤트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교통방송 DJ로 활약 중인 조준모씨의 봉사로 매주 목요일과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남부시장 2층 하늘정원에서 진행되는 '준모씨 라디오'에서는 청취자와 라디오 인터뷰 참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야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공용 라운지 조성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간판 정비 사업 등도 진행된다. /송효철 기자